

# 유전장애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산·학 협력 약정서

대구대학교와 전석복지재단은 유전학과 의학의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사회적 봉사기능을 함양하고, 대학의 연구기능과 전문사회 복지기관의 실천능력을 융합하여 궁극적으로 인류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고 공동 연대할 것을 약정하는 바입니다.

가. 대구대학교는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대학으로 거듭나면서, 대학의 학문적 지식과 기술 및 이론, 그리고 교수 및 대학생의 인적자원을,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선천성 장애의 원인과 그 대처방안을 개발하고자 하는 『유전장애연구센터』에 적극 투자하며, 이와 관련한 산·학 공동협력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나. 전석복지재단은 참여와 연대의 복지공동체 건설을 21세기 지역복지의 주요 목표로 삼아, 민간 사회복지실천기관의 현장경험, 실천기술, 조직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방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을 『유전장애연구센터』에 적극 투자하며, 이와 관련한 산·학 공동협력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1998 년 12 월 18 일

서명:

박윤흔

대구대학교  
총장 박윤흔

서명:

여운재

전석복지재단  
대표이사 여운재